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박군석[†] · 한덕웅

한림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대박탈이론을 통합하여 영남과 호남 지역 사람들이 경험하는 집단상대박탈과 집합전략의 사용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두 지역의 집단간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구조 요인들로서 지위, 안정성 및 합법성 요인의 지각과 아울러 출신 지역에 대한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의 경험과 집합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중년의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에 비하여 지위가 낮고, 현재의 낮은 지위에 이르게 된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두 집단간 지위관계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보다 사회 정체성 수준, 집단상대박탈의 경험 수준 및 집합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인지, 정서 및 행동의도로 구분한 세 유형의 집단상대박탈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보다 모두 높았다. 집단상대박탈을 준거로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와 합법성의 영향이 유의하고 두 집단간 지위관계의 지속을 의미하는 안정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도와 달리 사회지위가 높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안정성과 합법성의 지각에 따라서 집단행동의도박탈 경험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선거지원을 포함한 여러 집합전략을 사용하는 수준에서도 집단간 적대행위를 제외하고 6가지 집합전략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집합전략을 준거로 중다예언하게 되면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이외에도 집단상대박탈이 설명하는 추가변량이 유의하다는 가설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자료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집단간 관계의 설명 수준에서 최근 연구들을 토대로 집단상대박탈을 세분하여 측정하고 한국 사회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집단간 갈등 현상을 다룬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사회정체성이론, 상대박탈이론, 사회구조 요인, 집합전략, 집단지위, 합법성, 안정성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들을 조사한 한덕웅(1994)과 한덕웅·최훈석·강혜자·이경성·박군석(1995)의 연구에서 지역고정관념의 해소와 지역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다. 특히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사회문제 인식의 변화를 다룬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

에서 호남사람들은 호남과 영남의 집단간 관계에서 이른바 지역감정의 해소를 355개 사회문제들 가운데 6위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영남사람들은 38위로서 두 지역간에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이나 호남지역 사람들이 경험하는

* 이 논문은 박군석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교신저자 : 박군석(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한림대학교 노년학연구소, cavinpks@hallym.ac.kr)

집합적 상대박탈이나 사회정체성의 수준 그리고 집합전략 사용이 두 지역의 집단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회구조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현대사를 포함해서 한국의 역사에서 오랜 동안 집단간 고정관념과 갈등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른바 지역감정 문제를 다룬 바 있다(한국심리학회, 1988). 그리고 김혜숙(1993, 2001)은 사회인지의 관점에서 영호남인들이 지니는 고정관념과 귀인에 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지역간 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는 특히 한국의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근거를 둔 정치가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사람들은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93%의 지지를 보였고, 영남사람들은 이회창 후보에게 68%의 지지를 보였다.

과거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난 지역 기반의 투표현상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대선은 역대 선거와 달리 두 후보의 출신지역을 연고로 해서 지역별 지지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 선거와 다른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록 국민이 동일시하는 지역 출신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두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후보에게 집합적으로 투표하여 지역의 이익을 표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사회에서 이 현상이 불식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정치는 물론이고 지역에 따른 문화의 갈등은 장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에 대하여 개인의 판단보다 지역 사람들이 궁극적인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투표하는 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이와 같이 영남과 호남으로 지지자들이 양분되어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집합행동 현상은 사회심리학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동서로 양분한 지역편중의 집합적 투표 현상이 호남과 영남의 집단간 관계에서 각 지역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박탈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사실 국민이나 언론에서 흔히 지역감정이라고 부르는 사회문제는 한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5년간 언론매체에서 뉴스의 주제로 이른바 '지역감정' 문제를 언론에서 다룬 사례를 naver의 검색엔진으로 찾아보면 첫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과 1999년 한해 전체에 걸쳐서 각각 48건과 90건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에는 516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에 총선이 있었던 4월을 전후하여 빈도가 높아졌다. 2002년 12월 19일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시기에는 12월 20일 정오를 기준으로 1491건으로 1998년의 48건에 비하여 약 31배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때마다 지역감정 해소의 필요성이 주장되었으나 그 해악은 줄어들지 않은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선거와 다소 유형은 다르지만 두 지역간 갈등이 집합적 투표행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호남지역 주민들의 경우 영남지역보다 사회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호남사람들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남사람들보다 사회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영남사람들 가운데 호남사람들보다 사회지위가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영호남인들에게 두 지역간 지위나 세력관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장차 지위가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여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집단간 대립관계를 인식시킨 요인도 지역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영호남의 지역간 갈등을 집단간관계의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영호남인들이 경험하는 상대박탈의 경험과 아울러 이 지역 사람들이 집단간 관계에서 사용하는 집합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영호남인들이 각각 영남과 호남의 집단간 관계에서 당면한 사회구조 요인의 지각과 아울러 각 지역의 성원으로 자기범주화하는 수준에 따라서 상대박탈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구조 변인들의 지각과 지역사회정체성에 따라서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집합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두 지역의 집단간 관계가 형성된 역사는 오래되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각종 선거 기간에 지역간 갈등을 악용하면서 집단간 고정관념과 편견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의 전개과정으로 볼 때 영남과 호남 두 지역 사람들은 현재 두 지역의 상대적 지위나 세력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 지역간 관계에서 지위의 차이가 형성된 배경을 인식하거나 자신을 영호남인으로 동일시하는 수준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일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을 제안한 Tajfel(1978)은 인간이 자기를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달리 사회나 집단의 일원으로 정체화하게 되면 자신이 포함된 사회집단에서 자존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려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구조 요인들로 다음 세 요인들을 들고 있다: (1) 현재 집단간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진행된 과정의 합법성(legitimacy), (2)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집단간관계가 장차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안정성(stability), 그리고 (3) 내집단과 외집단이 집단간 관계에서 각각 처한 집단의 지위(status)이다.

그리고 Tajfel(1981)은 집단간 관계에서 상대박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의 영향을 가정한 이론을 제안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호남인들의 선거행동 뿐만 아니라 외집단과 구별해서 내집단 성원들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외집단에 대해서 경쟁이나 적대행동을 보이는 집합행동 현상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이 상대박탈 가설들을 검증한 연구들은 드물고 최근 유럽지역에서 보고된 일부 연구에서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이 이론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여러 상대박탈이론들을 실증연구에서 검증한 바가 없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사회구조 요인들인 사회적 지위, 지위의 안정성 그리고 지위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 지역인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정체성 및 집합적 상대박탈의 경험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경상도 사람들과 전

라도 사람들이 집합적 상대박탈을 경험하는 수준에서의 세 사회구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각각 지역인으로서 느끼는 사회정체성은 사회구조 요인들이 미치는 효과 이외에도 추가로 집합적 상대박탈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지역인으로서 내집단을 위하여 집합행동을 보이는 데는 위의 세 사회구조 요인들의 지각, 사회정체성 수준 이외에도 집합적 상대박탈 경험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호남의 지역간 관계에서 Tajfel이 제안한 상대박탈이론을 보완하여 필자들이 수정한 통합모형을 검증하면서 최근까지 상대박탈의 구성요소, 사회정체성 및 긍정적 정체성 추구전략에 관해서 제기된 쟁점들을 함께 다루려고 한다. 지금까지 여러 상대박탈 현상을 다룬 연구들에서 상대박탈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분개나 분노의 평정치를 합한 득점이거나, 불평불만이나 이와 유사한 여러 정서들의 평정치로 측정된 경우가 많았다(예, Crosby, 1982). 이처럼 상대박탈을 정서경험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측정치가 일정치 않아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일관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서 상대박탈이 단지 분개와 관련된 정서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착안하여 Cook, Crosby 및 Hennigan(1977)은 상대박탈 경험이 인지요소와 감정요소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여기서 인지요소는 결과의 차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지각을 의미하며, 감정요소는 이 지각된 차이가 지니는 가치 및 정서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 상대박탈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상대박탈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의도는 물론이고 상대박탈을 극복하려는 행동의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한덕웅, 2002). 본 연구에서는 상대박탈이 인지, 정서 및 행동의도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집단상대박탈척도(박근석·한덕웅, 2002)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행동의도박탈이란 결과의 상대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지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상대박탈을 다 요인들로 측정하고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의 경험과 집합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조사 대상

전라도 또는 경상도가 본적이고 현재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질문지는 전라도 584명, 경상도 438명으로 총 1022명을 대상으로 얻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전라도가 31.4세, 경상도가 29.4세이며 전체적으로는 30.5(표준편차 = 12.4)세이다. 두 지역의 연령대 및 성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 대상 지역의 연령별 및 성별 분포(%)

구 분	전라도	경상도	전체
연 령			
20대 이하	330(56.5)	282(64.4)	612(59.9)
30대	78(13.4)	48(11.0)	126(12.3)
40대	102(17.4)	75(17.1)	177(17.3)
50대 이상	74(12.7)	33(7.5)	107(10.5)
성 별			
남자	268(45.9)	188(43.0)	456(44.6)
여자	316(54.1)	250(57.0)	566(55.4)
전 체	584(57.1)	438(42.9)	1022(100)

조사 내용

집단상대박탈과 집합전략의 선행 결정요인들로서 개인이 출신지역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정체성, 사회구조 요인들로는 내집단의 지위, 안정성, 합법성의 지각을 측정하였다. 한편 집단상대박탈은 박탈인지, 박탈감정, 행동의도박탈의 세 요소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세 요소들에서 얻은 상대박탈의 총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요인 타당도가 높게 구성되었다. 상대박탈에 따른 집합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덕용(2002)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분한 7개 범주들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7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1 = 매우 그렇지않다, 7 = 매우 그렇다). 그러므로 집합전략은 평균이 높을수록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사회구조,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및 집합전략을 다룬 문항들은 총 88개이다.

조사 방법 및 시기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해당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실시지침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일반 성인들에 대한 실시는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조사 방법과 주의

사항을 교육한 후에 먼저 자기 실시하였다. 그 후 대학생들이 개인으로 부모나 주변 친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조사의 시기는 2002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분석 방법

각 구성개념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통변량의 시초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러 문항들을 요약된 군집으로 묶고자 varimax 회전을 하여 각각의 구성개념을 만들었으며, 선정된 문항들을 기초로 각 구성개념들의 신뢰도를 Cronbach Alpha(α)로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산출에는 SAS(8.01판)를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한편 사회구조 요인들과 지역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 계수(Pearson의 r)를 산출하고 위계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계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먼저 사회구조 요인들이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에 사회정체성이 추가로 설명하는 영향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남사람들과 호남사람들이 영호남의 집단간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집합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위계중다회귀 분석 기법으로 알아보았다. 집합전략의 사용에는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그리고 집단상대박탈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 절차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사회구조 요인들을 넣고, 2단계에서는 사회정체성 요인이 사회구조 요인들 이외에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요인 이외에 집단상대박탈 경험이 추가로 집합전략의 사용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추가 증분을 알아보았다.

결 과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및 집합전략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각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각 구

성개념별 신뢰도 및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집단의 지위는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요인부하량이 .66 - .80 범위이며 내적일치도는 $\alpha = .83$ 이었다. 안정성은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요인부하량이 .50 - .79 범위에 이르며 내적일치도는 $\alpha = .75$ 이었다. 합법성은 6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47 - .82 범위에 이르며 $\alpha = .79$ 이었다. 사회정체성은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요인부하량이 .49 - .79 범위에 이르며 $\alpha = .91$ 이었다. 집단상대박탈 가운데 집단박탈인지는 5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71 - .81 범위에 이르며 $\alpha = .86$ 이었다. 집단박탈감정은 6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78 - .95 범위에 이르며 $\alpha = .96$ 이었다. 집단행동의도박탈은 7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71 - .88 범위에 $\alpha = .92$ 이었다. 그리고 집단전체박탈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요인부하량이 .67 - .90 범위에 이르며 내적일치도는 $\alpha = .92$ 이었다.

한편 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추구하는 집합전략 가운데 상위범주화는 7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71 - .90 범위였으며 내적일치도는 $\alpha = .94$ 이었다. 비교차원변경은 7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70 - .83 범위에 이르며 $\alpha = .92$ 이었다. 선거지원은 5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64 - .78 범위에 이르며 $\alpha = .82$ 이었다. 내집단 성원에 대한 협조/추천은 4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51 - .73 범위에 이르며 $\alpha = .75$ 이었다. 외집단설득은 5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66 - .86 범위에 이르며 $\alpha = .86$ 이었다. 적대행동은 5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62 - .82 범위에 이르며 $\alpha = .86$ 이었다. 그리고 집단경쟁은 3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이 .47 - .76 범위에 이르며 $\alpha = .61$ 이었다. 그러므로 집단경쟁의 내적일치도가 다소 낮은 사실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구성개념들의 요인타당도와 내적일치도가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

사회구조,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의 요인별로 지역별 평균과 아울러 지역간 차이를 F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정체성의 수준이 경상도 사람들에 비하여 높았다($F(1, 1021) = 69.82, p < .001$). 또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보다 지위가 낮으며($F(1, 1021) = 655.05, p < .001$), 현재 지위가 장차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으며($F(1, 1021) = 10.97, p < .001$), 현재 지위에 이르게 된 과정도 비합법적($F(1, 1021) = 224.75, p < .001$)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집단상대박탈을 구성하는 세 요인들 각각이나 전체상대박탈의 수준도 모두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에 비하여 높았다($F(1, 1021) = 194.64, p < .001$). 이 결과는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 그리고 집합적인 상대박탈 경험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한다.

표 2.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사회구조 요인과 집단상대박탈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구 분	사회구조 요인		사 회		집단상대박탈 요인			
	지위	안정성	합법성	정체성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전라도 (n=584)	3.39 (1.03)	4.93 (1.00)	2.96 (1.01)	4.25 (0.78)	4.76 (1.01)	3.89 (1.25)	2.48 (1.29)	3.71 (0.97)
경상도 (n=438)	5.06 (1.01)	4.71 (1.12)	3.91 (1.00)	3.81 (0.89)	3.48 (1.15)	2.85 (1.44)	2.24 (1.11)	2.86 (0.97)
전체 (n=1022)	4.10 (1.31)	4.84 (1.06)	3.37 (1.10)	4.06 (0.85)	4.22 (1.24)	3.44 (1.57)	2.37 (1.22)	3.35 (1.06)
유의수준	***	***	***	***	***	***	***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지위가 높고, 안정성, 합법성, 사회정체성 지각 및 집단상대박탈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
 주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

표 3.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의 단순상관계수(전체)

구 분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지 위	-.297***	-.699***	-.492***	-.232***	-.606***
안정성	.215***	.237***	.156***	-.041	.154***
합법성	-.297***	-.663***	-.466***	-.103***	-.529***
사회정체성		.366***	.357***	.179***	.388***

표 4.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의 단순상관계수(전라도)

구 분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지 위	-.141***	-.629***	-.395***	-.156***	-.491***
안정성	.087*	.167***	.087*	-.022	-.093*
합법성	-.147***	-.622***	-.387***	-.067	-.446***
사회정체성		.219***	.278***	.185***	.301***

표 5.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의 단순상관계수(경상도)

구 분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지 위	-.231***	-.497***	-.382***	-.319***	-.505***
안정성	.310***	.262***	.180***	-.086*	.159***
합법성	-.297***	-.522***	-.382***	-.085*	-.426***
사회정체성		.366***	.345***	.141**	.368***

집단이 처한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의 상관계수를 전체(표 3)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표들을 살펴보면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정체성, 집단박탈인지, 집단박탈감정, 집단행동의도박탈 및 집단전체박탈을 각각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영호남 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한 표 4와 표 5의 결과도 유사하였다. 사회정체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상대박탈의 경험도 높았다. 또한 현재 내집단이 처한 낮은 지위가 안정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사회정체성, 집단박탈인지와 집단박탈감정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집단행동의도박탈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른 현상을 보였다. 즉, 전라도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집단간 지위가 장차 변화가능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단행동의도박탈 경험 수준이 더 높았다.

한편,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에 의해서 집단상대박탈을 설명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중다회귀계수와 전체 설명변량을 전체(표 6)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먼저 사회구조 요인들과 지역사회정체성에 의해서 집단전체박탈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례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①지위, ②합법성, ③사회정체성 및 ④안정성의 순서였다.

그러나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안정성 요인은 상대적으로 회귀계수가 낮았다. 이 결과로부터 현재 집단지위의 지각, 현재의 지위에 이르게 된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사회정체성 수

준이 상대박탈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정체성 요인은 지위와 합법성 요인들이 미치는 효과 이외에도 추가로 집합상대박탈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설 2와 3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결과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지지되었으나, 전라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집단간 지위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나타내는 안정성 요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집단상대박탈에 미칠 수 있는 집단 사회구조요인들의 영향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구조 요인이나 집단상대박탈의 요소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전체)

단 계	변수명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1	지 위	-.195***	-.475***	-.333***	-.286***	-.449***
	안정성	.132***	.015	.003	-.078*	-.026
	합법성	-.133***	-.381***	-.273***	.017	-.278***
	R ²	.126***	.588***	.291***	.061***	.415***
2	사회정체성		.126***	.204***	.143***	.205***
	ΔR ²		.014***	.036***	.018***	.037***
	R ^c		.602***	.327***	.079***	.452***

표 7.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전라도)

단 계	변수명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동의도	전 체
1	지 위	-.093 [†]	-.424***	-.273***	-.175***	-.367***
	안정성	.058	.039	.008	-.035	.002
	합법성	-.085 [†]	-.394***	-.241***	.024	-.252***
	R ²	.031***	.517***	.202***	.028***	.292***
2	사회정체성		.087**	.197***	.164***	.204***
	ΔR ²		.007**	.038***	.026***	.041***
	R ^c		.524***	.239***	.054***	.332***

표 8.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이 집단상대박탈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경상도)

단 계	변수명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인 지	감 정	행 동의도	전 체
1	지 위	-.137**	-.354***	-.281***	-.336***	-.405***
	안정성	.212***	-.008	-.022	-.181***	-.083*
	합법성	-.141**	-.396***	-.290***	-.053	-.320***
	R ²	.139***	.376***	.214***	.127***	.328***
2	사회정체성		.196***	.233***	.121*	.238***
	ΔR ²		.033***	.047***	.013*	.049***
	R ^c		.408***	.261***	.140***	.377***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집합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Tajfel은 사회구조 요인들에 따라서 내집단의 부정적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면 내집단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이나 집합적 전략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내외집단간 관계가 비합법적이거나 혹은 비합법적이면서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면 집합적으로 사회경쟁하려는 현실적 전략이 선택된다. 그리고 내외집단간 사회비교 과정에서 내집단의 긍정적 독특성을 확립하려고 사용하는 사회창조 전략은 현재 내외집단의 지위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고 안정성이 높은 사회맥락에서 선택된다(Tajfel, 1978).

본 연구에서는 Tajfel이 개인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집

합전략에 관한 예측이 어느 조건에서 타당하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분석에서는 집합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요인별로 지역별 평균과 아울러 차이를 F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를 보면 지역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사용하는 '적대행동' 전략을 제외한 다른 집합전략들에서 경상도 사람들보다 전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전라도 사람들이 집단상대박탈을 경상도 사람들보다 더 높게 경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별 사회구조 요인들의 측정치와 집합전략간 단순상관계수들 및 중다회귀 분석 결과가 표 10부터 표 15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창조전략들 가운데 상위범주화 및 비교차원의 변경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여 상관이 유의하였다. 사회적 창조전략들은 합법성과 상관도 유의하여 합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상위범주화하여 자기와 동일한 사회범주로 보는 경향이 높았으며, 개인이 속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지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내집단의 우월성을 찾는 방향으로 비교차원을 변경하는 수준도 높았다. 집단간 행동전략들 가운데 적대행동은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하여 현재의 지역간 지위 차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집단경쟁은 경상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지위 집단으로 지각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에서만 유의한 역

표 9.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집합전략 사용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구 분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전라도 (n=584)	6.02 (1.04)	4.46 (1.01)	3.86 (1.04)	3.43 (1.33)	3.03 (1.16)	2.05 (1.05)	3.27 (1.11)
경상도 (n=438)	5.75 (1.36)	3.82 (0.98)	3.35 (1.20)	2.91 (1.36)	2.69 (1.14)	2.03 (1.04)	2.82 (1.17)
전체 (n=1022) 유의수준	5.90 (1.20) ***	4.18 (1.04) ***	3.64 (1.14) ***	3.20 (1.36) ***	2.88 (1.16) ***	2.04 (1.05)	3.07 (1.16)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집합전략의 선택이 높음을 의미.

상관을 보여서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안정성이 높아서 낮은 내집단 지위가 장차 변화될 수 없다고 볼수록 집단경쟁 전략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았다. 한편 합법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집단경쟁 전략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지위 집단인 경상도 사람들의 자료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합법성과 안정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사회창조전략을 사용하고 비합법성이 높고 불안정하다고 지각할수록 사회경쟁전략이 선택된다는 Tajfel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 두 지역의 결과가 달리 나타난 현상은 집합전략 선택을 이해하는데 지위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두 지역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도 사람들의 경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 수록 상위범주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현재와 같은 집단간 지위 관계가 변화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단경쟁 전략을 경상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거나 비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행동전략들 가운데 집단경쟁

표 10.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과 집합전략의 단순상관계수(전체)

전략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사회구조 \							
지 위	-.182***	-.385***	-.284***	-.266***	-.181***	-.006	-.261***
안정성	.369***	.192***	.131***	.022	-.036	-.209***	-.023
합법성	-.371***	-.323***	-.190***	-.147***	-.078*	.162***	-.122***
사회정체성	.157***	.541***	.508***	.349***	.315***	.082**	.350***
집단상대박탈	-.002	.402***	.444***	.409***	.422***	.300***	.450***

표 11.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과 집합전략의 단순상관계수(전라도)

전략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사회구조 \							
지 위	-.247***	-.250***	-.093*	-.117**	-.018	.148***	-.067
안정성	.311***	.099*	.051	.003	-.150***	-.227***	-.106**
합법성	-.358***	-.207***	-.041	-.042	-.052	.242***	-.014
사회정체성	.082*	.500***	.427***	.255***	.234***	.048	.330***
집단상대박탈	-.004	.321***	.370***	.290***	.321***	.238***	.372***

표 12.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과 집합전략의 단순상관계수(경상도)

전략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사회구조 \							
지 위	-.040	-.282***	-.307***	-.300***	-.306***	-.214***	-.332***
안정성	.401***	.258***	.175***	.023	.077	-.175***	.025
합법성	-.357***	-.256***	-.188***	-.147**	-.128**	.075	-.086*
사회정체성	.192**	.513***	.531***	.373***	.357***	.115*	.304***
집단상대박탈	-.100*	.324***	.430***	.474***	.510***	.440***	.470***

표 13.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집합전략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전체)

단계	변수명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1	지 위	.033	-.305***	-.268***	-.272***	-.201***	-.140***	-.282***
	안정성	.266***	.099	.085**	-.023	-.064 [†]	-.165***	-.064 [†]
	합법성	-.291***	-.109**	-.004	.003	.015***	.182***	.017
	R ²	.200***	.172***	.088***	.072***	.037***	.065***	.073***
2	사회정체성	.027	.454***	.471***	.314***	.314***	.148***	.329***
	ΔR ²	.001	.181***	.192***	.086***	.086***	.019***	.094***
	R ²	.201***	.352***	.280***	.158***	.124***	.084***	.167***
	집단상대박탈	-.332***	.116***	.331***	.352***	.477***	.565***	.437***
3	ΔR ²	.061***	.007***	.060***	.068***	.125***	.175***	.104***
	R ²	.261***	.360***	.340***	.226***	.248***	.259***	.271***

표 14.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집합전략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전라도)

단계	변수명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1	지 위	-.097*	-.205***	-.101*	-.138**	-.007	.035	-.077
	안정성	.246***	.060	.048	-.014	-.150***	-.189***	-.111*
	합법성	-.257***	-.085	.023	.048	.027	.195***	-.002
	R ²	.197***	.075***	.011	.015*	.025**	.102***	.017*
2	사회정체성	-.004	.467***	.426***	.265***	.261***	.109**	.343***
	ΔR ²	.000	.212***	.175***	.068***	.066***	.012**	.113***
	R ²	.197***	.287***	.180***	.083***	.091***	.113***	.130***
	집단상대박탈	-.280***	.127**	.359***	.287***	.436***	.503***	.411***
3	ΔR ²	.052***	.011**	.086***	.055***	.127***	.170***	.112***
	R ²	.250***	.297***	.272***	.138***	.218***	.283***	.242***

표 15. 사회구조 요인들,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집합전략을 설명하는 중다회귀계수와 변량(경상도)

단계	변수명	사회적 창조		내집단 지원		집단간 행동		
		상 위 범주화	비교차원 변경	협조/추천	선거지원	집단경쟁	적대행동	외집단 설득
1	지 위	.112*	-.214***	-.272***	-.286***	-.299***	-.282***	-.348***
	안정성	.300***	.168***	.101+	-.075	.010	-.191***	-.033
	합법성	-.248***	-.094+	-.037	-.081	-.014	.083	.025
	R ²	.205***	.128***	.108***	.096***	.094***	.100***	.112**
2	사회정체성	.060	.445***	.494***	.356***	.326***	.154**	.281***
	ΔR ²	.003	.171***	.210***	.109***	.092***	.021**	.068***
	R ²	.208***	.298***	.318***	.205***	.186***	.120***	.180***
	집단상대박탈	-.336***	.093 [†]	.255***	.376***	.456***	.532***	.405***
3	ΔR ²	.070***	.005 [†]	.041***	.088***	.129***	.176***	.102***
	R ²	.278***	.304***	.359***	.293***	.315***	.297***	.282***

을 선택하는 경향과 아울러 ‘선거때 외집단 출신의 대통령 후보에게는 표를 찍어주지 않겠다’는 선거지원 경향이 전라도 사람들보다 강했다.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집합 전략 선택을 설명하는 회귀계수와 전체 설명변량을 전체(표 13)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표 14와 표 1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집합전략 선택을 설명하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순서대로 보면 전반적으로 ① 집단상대박탈, ② 사회정체성, 및 ③ 사회구조 요인의 순서였다. 즉,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 요인에 더하여 집단상대박탈 요인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량의 증분은 모두 유의하였다(가설 4 지지). 이 현상은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여 집합전략 선택을 설명하는 변량의 크기를 보면 두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집합전략은 내집단 지원 중 선거지원이었다. 즉, 경상도가 전라도에 비하여 그 설명변량이 매우 컸다. 이와 유사하게 협조/추천 전략

및 집단경쟁 전략에 대해서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비하여 더 큰 설명변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위 구분에 따른 각 준거변인들의 차이
 표 16에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평균의 차이검증(F)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6을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전라도 사람들 584명 가운데 69.38%가 경상도에 비하여 전라도 사람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M = 2.88$)고 지각하였다. 한편 경상도 사람들 438명 중 81.74%에 이르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M = 5.36$)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준거변인들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상도 사람들($M = 5.36$)은 자신들의 사회지위가 경상도 사람들보다 높다고 지각하는 전라도 사람들($M = 4.91$) 보다도 사회 지위의 지각 수준이 더 높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 지위가 형성된 과정이 어느 정도 합법적인지 인식하

표 16. 지역 및 지위의 구분에 따른 조건별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준거변인 \ 인원	지역 지위	전 라 도		경 상 도	
		저 지 위	고 지 위	저 지 위	고 지 위
		408명(69.38%)	114명(19.52%)	42명(9.59%)	358명(81.74%)
사회구조	지 위	2.88(0.66)d	4.91(0.69)b	3.40(0.58)c	5.36(0.83)a
	안 정 성	4.98(0.97)ab	4.77(1.06)bc	5.15(1.14)a	4.64(1.13)c
	합 법 성	2.70(0.89)d	3.64(1.01)b	3.27(0.95)c	4.00(1.00)a
사회정체성		4.29(0.79)a	4.21(0.85)a	4.06(0.98)a	3.78(0.87)b
집단상대 박 탈	인 지	5.06(0.87)a	3.88(1.02)c	4.41(1.18)b	3.33(1.11)d
	감 정	4.16(1.48)a	3.16(1.45)b	4.09(1.43)a	2.69(1.35)c
	행동의도	2.55(1.35)b	2.25(1.15)bc	2.91(1.14)a	2.13(1.05)c
	전 체	3.92(0.96)a	3.09(0.85)b	3.80(0.92)a	2.72(0.91)c
사 회 적 창 조	상위범주화	6.14(0.94)a	5.73(1.28)b	5.96(1.10)ab	5.71(1.42)b
	비교차원변경	4.58(1.03)a	4.14(1.04)b	4.22(0.88)b	3.77(0.98)c
내 집 단 지 원	협조/추천	3.91(1.09)a	3.83(0.98)a	3.96(1.14)a	3.27(1.18)b
	선거지원	3.47(1.37)ab	3.38(1.29)b	3.80(1.25)a	2.79(1.31)c
집 단 간 행 동	집단경쟁	3.01(1.20)b	3.20(1.08)ab	3.35(1.15)a	2.59(1.10)c
	적대행동	1.99(1.02)b	2.24(1.16)ab	2.38(1.13)a	1.96(1.00)b
	외집단설득	3.29(1.13)a	3.28(1.07)a	3.59(1.04)a	2.69(1.15)b

주 1) 집단 지위를 구분한 기준은 7점 척도에서 중간 값인 4를 기준으로 높게 반응한 고지위 조건과 낮게 반응한 저지위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중간(4)에 해당되는 전라도 사람 62명(10.62%)과 경상도 사람 38명(8.68%)은 제외하였다.

주 2) 평균치가 높을수록 준거변인의 지각, 경험 또는 사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 3) 각 평균치의 우측에 있는 영문 표기가 같은 조건들은 평균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는 수준에서도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전라도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이 지위가 형성된 과정이 가장 합법적($M = 4.00$)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가운데 내집단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지위의 결정과정이 가장 비합법적($M = 2.70$)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높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소속 지역에 대한 사회정체성 수준($M = 3.78$)이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사람들보다 낮았다. 대체적으로 집단상대박탈은 지역에 따른 구분에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지역이 저지위라고 지각하는 조건에서 비교적 높게 경험하였다. 그러나 행동의도박탈의 경우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사람들($M = 2.91$)이 전라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사람들($M = 2.55$)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집합전략들 가운데 인지전략인 사회적 창조에서는 전라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준이 높았다. 한편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높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다른 조건의 사람들에 비해 협조/추천, 선거지원 그리고 집단경쟁들을 사용하는 수준이 낮으며, 특히 현재 자신이 소속한 지역 집단의 사회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가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회구조 요인들이 사회정체성과 집단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집단간 지위관계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성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와 같은 사회지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비합법적이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역인으로서 사회정체화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 결과는 Tajfel의 사회정체성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집단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합법성이 낮을수록 집단상대박탈을 지각하는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집단상대박탈의 3개 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집단상대박탈 전체의 양상과 달랐다. 즉,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안정성 요인은 행

동의도박탈을 제외한 박탈인지 및 박탈감정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 안정성 요인이 행동의도박탈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안정성 요인이 지위나 합법성 등 다른 사회구조 요인과 상호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행동의도박탈의 경험은 현재 집단간 지위관계의 변화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합법성 요인은 지위요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박탈 유형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행동의도박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상대박탈의 구성요소들을 더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사회구조 요인들이 집단상대박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Tajfel의 사회정체성이론이 한국사회의 지역간 갈등을 이해하는데도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정체성에 근거를 두는 설명을 지양하고 집단간 관계의 수준에서 집단간 갈등이 형성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의 지역간 갈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2002년 12월 대선에서 특정 지역의 후보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 집합적으로 투표행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집단간 관계의 수준에서 사회구조 요인들의 지각과 지역사회정체성 수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영호남 지역에서 지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여 이른바 몰표행위가 나타난 배경에 지역간 지위의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와 지역사회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라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출신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상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각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정체성이 크게 작용하여 호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다수가 투표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에도 현재 지역간 사회적 지위가 비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선거에서 영남지역의 이해를 반영할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지역감정이나 지역간 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집단간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을 제한적으로 다룬 바와 달리 집단간 관계의 수준에서 집단간 갈등의 선행요인으로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 및 집단상대박탈이 지역간 집합행동

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집단상대박탈의 경험이 집합전략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낸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역사적으로 호남과 영남에서 지역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남지역 사람들과 호남지역 사람들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서 지니는 기존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한국역사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과 가치 판단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다음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먼저 영호남 지역 사람들이 사회구조 요인들로서 사회지위, 합법성, 그리고 안정성을 지각하는데 각각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영호남인들이 각기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행동을 보이는 근거를 한국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인식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영호남의 지역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실제의 지역간 사회범주의 의미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사회구조 요인, 사회정체성, 집단상대박탈 및 집합전략이 본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영향의 관계를 이루는지 실험을 통해서 반복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인과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집단간 관계의 설명 수준에서 상대박탈을 다룬 최근 유럽지역의 연구들을 확장하여 사회구조 요인들과 사회정체성 요인들이 상대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박탈의 측정을 세분하여 다룸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집단상대박탈과 아울러 집합전략을 사용하는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김혜숙 (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 박군석 (2002).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과 집합전략의 사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군석, 한덕웅 (2002). 영호남인의 상대박탈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48-253.
- 한국심리학회 (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한덕웅 (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7-38.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한국 사회문제의 지각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99-111.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ok, T. D., Crosby, F., & Hennigan, K. M. (1977). The construct validity of relative deprivation. In J. Suls & R. Miller (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307-333. Washington, DC: Hemisphere.
- Guimond S., & Dube'-Simard L. (1983). Relative deprivation theory and Quebec nationalist movement: The cognition-emotion distinction and the personal-group deprivation iss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26-535.
- Kessler T., Mummendey A., & Leisse U. (2000). The personal-group discrepancy: Is there a common information basis for personal and group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95-109.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ructure variables and social identity on relative deprivation and collective strategies in Youngnam and Honam regional areas

Kun-Seok Park and Doug-Woong Hahn

Hallym Institute for Aging Studies,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predictions derived from the integrated theory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recent relative deprivation theories for explanation of the intergroup conflicts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al areas in Korea with survey research. It was hypothesized that both of the structural factors *ie*, ingroup status, legitimacy, stability of the ingroup status and the regional social identity would influence on the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collective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predictions derived from the integrated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and intergroup strategy, except the stability of the ingroup status. More 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in Honam regional area perceived the lower ingroup status and legitimacy than those of Youngnam regional area.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both of the social structure variabl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perience of the group relative deprivation and use of collective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interpreted as explanations with integration of two theories at a intergroup relationship level. An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relative deprivation theory, social structure factors, collective strategies, ingroup status, legitimacy, stability

원고접수 : 2003년 6월 13일

심사통과 : 2003년 7월 28일